

## 영어의 절 발화에 나타난 한국인 화자의 경계실현 양상\*

한혜승<sup>\*\*</sup>, 이주경<sup>\*\*\*</sup>

서울시립대학교

**Han, Hyeseung & Lee, Joo-Kyeong. (2008). Korean speakers' phrasing patterns in English clauses. *Modern English Education*, 9(3), 257-277.**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phrasing patterns in Korean speakers' production of English *that*-clauses. For this, the patterns of Korean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English native speakers through the acoustic experiment. The tonal phrasing patterns of two different *that*-complement clauses and *that*-relative clauses were examined in terms of the phrase accents and boundary tones. Two kinds of *that* clauses which are complement and relative clauses, are used in three forms such as *that*-retention, *that*-deletion, and adverb insertion before *that*. Both advanced learners and beginners of English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In the case of the advanced, their phrasing patterns are similar to those of native speakers in that they distinguish complement clauses from relative ones with making no phrase after *that* in the relative clauses. However, advanced learners' frequency of phrasing was comparatively low, which can be interpreted as stating that they focus more on reading English sentences than comprehension. In the case of beginners, their local phrasing in the relative clauses was considerably different from native speakers' such that they frequently put phrase boundaries after *that*. Also, at the level of global phrasing, they produce comparatively more phrases over a whole sentence.

[phrasing/*that*-clauses/boundary tones/phrase accents/complement clauses/relative clauses/구설정/*that*절/경계성조/구액센트/보문절/관계대명사절]

---

\* 본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1-A00155)

\*\* 서울시립대학교 기초연구과제 전임연구원

\*\*\* 서울시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신저자

## I. 서론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억양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발화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구희산, 1989, 1991; 엄혜영, 이혜숙, 김기호, 2001; 오세풍, 장영수, 이용재, 2001; 이주경, 2005a, 2005b). 대부분의 연구는 영어 억양구의 주요 구성성분을 이루고 있는 피치액센트(pitch accents)와 가장자리 성조(edge tones)에 주목하여 억양구 내의 피치액센트의 실현양상 및 의미전달의 측면에서 한국인 학습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구액센트(phrase accents)나 경계성조(boundary tones)와 같은 가장자리 성조가 원어민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발화 내의 구경계 위치나 구경계 빈도와 같은 구설정(phrasing) 양상에 대하여는 주목하지 않았다.

구설정은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운율현상으로서 Ferreira(1988)는 구설정과 같은 운율작용이 화자의 입장에서 같은 구에 속한 구성요소들을 의미적으로 응집시키는 작용을 하며 그 결과 청자의 입장에서 기억유지와 의미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 올바른 위치에 나타나지 않은 구경계는 오히려 없는 경우보다 청자들의 의미인지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Herwijnen, Terken, Bosch, & Marsi, 2003)도 있다. 즉, 구설정이 예상되는 위치에 실현되지 않는 경우나 또는 빈번한 구설정을 하는 경우 모두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학습자가 적절한 구설정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는지를 조사하고, 원어민의 구설정 패턴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음성실험에서는 한국인 학습자가 발화한 *that*이 포함된 구문을 이용하여 구액센트와 경계성조 실현양상을 살펴보고, 억양상에 나타나는 구설정의 위치 및 빈도수를 조사하고자 한다.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억양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피치액센트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져 왔다(신동현, 1999; 엄혜영 등, 2001; 이명숙, 2004; 이주경, 2005a; 이혜숙, 2002). 이는 아마도 피치액센트가 한국어 억양에 나타나지 않는 영어 억양의 특성이므로 이에 대한 영어학습자의 발화양상에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술어 및 보어(목적어)구조에서 협의 및 광의 초점 발화에 나타난 원어민과 한국인의 피치액센트 유형을 비교한 엄혜영 등(2001)에서는 한국인 화자들이 원어민과 달리 초점 및 정보구조에 따른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내용에 H\*나 L+H\*를 부여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지각실험 결과 한국인 화자의 잘못된 억양패턴은 담화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한편,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저성조 피치액센트를 연구한 이주경 (2005a)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 모국어 화자보다 저성조 피치액센트(L\*) 음절의 소리의 세기를 약하게 발화하고 음절길이도 짧게 실현하며 피치 범위가 좁아 문미에서 충분한

하강 후 상승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치액센트에 관한 연구 이외에 영어발화에 나타나는 경계성조에 관한 몇 가지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오세풍 등(2001)에서는 문장부사와 이후에 이어질 문장의 관계 및 정보의 공유성 여부에 따라 억양패턴을 구분하고, 한국인의 발화에서 원어민과 다른 다양한 오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인 화자들의 지필고사 성적에 따라 영어 능력 수준을 구분하여 영어 접속사 발화에 나타난 구액센트와 경계성조의 패턴을 연구한 이주경(2005b)에서는 한국인 화자들은 대체로 접속사 발화구문의 가장자리에 고성조를 포함한 구액센트와 경계성조를 보임으로써 가장자리 성조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피치액센트와 가장자리 성조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과 달리, 모국어의 언어구조에 따라 구설정의 위치가 보문소를 중심으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Yongsoon Kang & In-Moon Kim, 2005).<sup>1</sup>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의 영어 보문절 발화에 나타난 구설정 패턴을 원어민의 발화와 비교한 결과 원어민들이 주절의 동사와 *that* 사이에서 구설정을 하는 반면 한국인들의 경우는 영어능력(상위집단 및 중위집단)과 상관없이 대부분 *that* 뒤와 보문절 내 주어 앞에서 구설정을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 (1, a)에서 영어의 보문소 *that*은 후행하는 절과 함께 구설정이 되는 반면, (1, b)에서 한국어의 보문소에 해당하는 "-을"은 보문절 내 선행하는 나머지 요소들과 함께 앞 방향으로 구설정이 된다고 한다. 이는 head-initial의 특성을 보이는 영어와 head-final인 한국어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한국인 화자들이 영어 발화에서 *that* 뒤에 구설정을 하는 것은 한국어의 경우 보문소 뒤에서 구설정이 되는 현상이 전이(transfer)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1) a. (I know) (**that** she is a very busy woman).
- b. (나는 그녀가 아주 바쁜 여성**임을**) (안다).
- I-topic she-nom very busy woman-comp know.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먼저 영어와 한국어의 서로 다른 구문구조를 근거로 하여 원어민과 한국어 화자의

<sup>1</sup> Yongsoon Kang과 In-Moon Kim(2005)에서는 구설정 양상에 대한 음향음성적 단서(acoustic cues)로 *that*의 길이, 동사와 *that* 사이 그리고 *that*과 내포절 주어 사이의 휴지(pause) 길이를 사용하였다. 원어민, 한국인 상위화자, 한국인 중위화자 집단을 실험대상자로 하여 *that* 보문소의 길이와 휴지 길이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that* 보문소 길이는 원어민, 한국인 상위, 한국인 하위의 순으로 점차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지길이의 비율값(보문소 앞 휴지길이 / 보문소 뒤 휴지길이)도 원어민, 한국인 하위, 한국인 상위의 순으로 나타나 원어민이 *that* 앞의 휴지를 *that* 뒤보다 길게 발화하고, 한국인 하위 화자들은 비슷한 길이로 발화하며, 한국인 상위수준 화자들은 *that* 앞의 휴지보다 *that* 뒤의 휴지를 훨씬 길게 발화한다고 밝혔다.

영어발화에서 보문소의 상반된 구설정 방향을 예측한 점이다. 이는 두 언어에서 내포문을 이끄는 핵요소로서의 보문소의 구조적 역할이나 리듬과 같은 운율적 고려없이 보문소의 구설정 방향만을 대비시킨 것으로서 설득력을 찾기 어렵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두 문장의 발화에 대한 피치곡선의 예를 제시하며 원어민은 *that* 앞에, 한국인 두 집단은 *that* 이후에 구 설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체 발화 자료에서 나타난 *that* 전, 후 위치에 따른 구 설정의 비율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Yongsoon Kang과 In-Moon Kim(2005)에서 구경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위치별 길이측정값을 사용하였다. 길이측정 구간으로 *that*과 그 앞/뒤의 휴지구간을 지정하였지만, 실험한 다섯 문장 가운데 네 문장의 주절 동사가 폐쇄음으로 끝나고, 보문소 *that*도 역시 폐쇄음으로 끝남으로 인해 폐쇄구간과 휴지구간이 구별이 불가능하다. 즉, 폐쇄음의 폐쇄구간인지 휴지구간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도의 기준 없이 길이를 측정하는 것은 측정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측정구간에 대한 기준이 타당하다고 해도 읽기 속도를 포함하여 화자간, 화자내 변수를 고려하는 길이의 ‘정규화 과정(normalization)’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음향음성학적 단서만으로 구경계의 단서를 제시하는 것에 이와 같은 한계가 있으므로 한혜승, 이주경(2007)에서는 영어 원어민발화의 억양곡선에 나타나는 구경계의 실현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구경계가 예상되는 보문절 및 관계대명사절의 *that* 경계부분에 나타난 구액센트와 경계성조를 관찰하여 구설정 패턴을 비교하였다. 실험결과로 관계대명사절은 대부분의 경우 *that* 앞에 구경계가 생성되었으나 보문절은 *that* 앞과 뒤에 모두 구경계가 설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that*이 생략된 경우에 나타난 구경계는 화자들이 구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that*을 표층에서 일정한 운율요소로 보상하여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고 원어민들의 문장구조에 대한 인식이 발화시에 억양을 통해 반영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hat*을 포함하는 보문절과 관계대명사절 발화의 억양곡선을 이용하여 *that* 경계부분에 발생하는 구설정 뿐만 아니라 전체 문장 발화 내의 구설정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음성실험에서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능숙도(proficiency)에 따른 상, 하 집단별 구설정 패턴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원어민의 패턴과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인 학습자의 절 발화에 나타나는 구설정 오류양상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영어 억양교육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실험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서로 다른 수준의 영어구사능력을 가진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that* 보문절과 관계대명사절 발화에서 구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that* 전 또는 후 위치의 국부적(local) 경계양상을 조사하고, 또한 *that* 이외의 문장 위치에 나타나는 총체적(global) 구경계 패턴을 측정하여 원어민과 비교하고자 한다.

1. 실험절차

Bošković과 Lasnik(2003), Young-Sun Kim(1999, 2004)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어 보문절에서는 보문절을 연결하는 보문소 *that*이 생략가능하고, 따라서 다음 (2, a)의 문장과 (2, b)문장은 모두 발화가능한 문장이다. 그러나 *that* 앞에 부사어가 삽입되는 (2, c)의 경우에는 부사어와 *that* 절 사이의 의미구분을 위해 억양구(/) 경계가 생성되며, 이 경우 *that*이 생략되면 생략된 위치에 형성된 영보문소가 억양구 경계를 넘어 선행하는 동사나 명사에 부가(clitic)될 수 없으므로 (2, d)에서처럼 비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보문절에 관한 이와 같은 설명은 관계대명사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다.

- (2) (a) It seemed that David had left.
- (b) It seemed  $\emptyset$  David had left.
- (c) It seemed at that time // that David had left.
- (d)\*It seemed at that time //  $\emptyset$  David had left.

본 연구에서는 위 문장의 네 가지 유형 가운데 비문(2, d)을 제외한 세 가지를 녹음자료로 사용하였다. 녹음에 사용한 문장은 보문절과 관계대명사절 각각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문장으로 다음 (3)과 (4)에 제시된 예와 같다. (3)과 (4) 각각의 (a) 문장유형을 ‘*that* 유지문’, (b) 문장유형을 ‘*that* 삭제문’, 그리고 (c) 문장유형을 ‘부사어 삽입문’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보문절을 포함한 아홉 문장, 관계대명사절을 포함하는 아홉 문장을 만들어 모두 54개(9문장\*3유형\*2종류)의 실험문장을 구성하였다. 구성 문장에서 다양한 어휘의 사용에 따라 문장의 길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문장의 구조 변화가 구설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Watson과 Gibson(2004)의 이론에 따라 문장 내의 *that* 전/후에 구경계 발생 가능성을 가장 높도록 의도하였다.<sup>2</sup> 즉, *that* 구문 이외 위치의 구경

<sup>2</sup> 문장 구 구성요소의 기본 단위를 운율구로 보고, 좌우경계가설(Left-Right hypothesis)을 통해 문장 내 일정한 지점에 생길 수 있는 구경계의 가능성은 해당 단어들로 끝나거나 시작하는 가장 큰 통사적 단위 내에 포함되는 운율구의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Watson & Gibson, 2004).

계가 that 구문보다 경계발생 가능성이 더 크지 않도록 문장 구조를 제한하였다.

(3) 보문절을 내포한 문장의 유형별 구성

- (a) They said that it was serious.
- (b) They said  $\emptyset$  it was serious.
- (c) They said once that it was serious.

(4) 관계대명사절을 내포한 문장의 유형별 구성

- (a) They sell the shoes that he wants.
- (b) They sell the shoes  $\emptyset$  he wants.
- (c) They sell the shoes there that he wants.

녹음에 참여한 한국인 학습자는 동일한 형태의 토익시험에 응시한 서울시 내 S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들로서 전체 점수의 1 사분위 값이하의 학생을 하위집단으로, 3 사분위 값 이상의 학생을 상위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에 5명의 학생이 녹음에 참여하였다.<sup>3</sup> 상위집단은 남성 2명, 여성 3명이고, 그 가운데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1년 정도의 미국과 영국체류 경험이 있었다. 하위집단은 남성 4명, 여성 1명이며 외국체류 경험이 없었다.<sup>4</sup>

녹음된 문장은 문장단위의 .wav 파일로 분리한 뒤 Pitchworks를 이용하여 ToBI 전사체계를 근거로 전사하였다. that 유지문과 부사어 삽입문의 경우는 that 앞이나 뒤의 위치를 구분하고, that 생략문의 경우는 앞, 뒤 구분없이 that 이 생략된 위치에 구현되는 구액센트나 가장자리 성조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중간구나 억양구 경계를 표기하였고, 그 이외에 문장 전반에 나타난 중간구나 억양구 경계 및 피치 액센트도 표기하였다.<sup>5</sup> 한국인 화자의 발화에서 비유창성(disfluency)에 따른 발화의 끊김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분석될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는 한국인을 수준별 집단으로 나누어 원어민과 구경계 설정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원어민과 같은 기준을

<sup>3</sup> 모집단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1 사분위 값, 전체 데이터의 75%에 해당하는 값을 3 사분위 값이라하고, 1사분위 값과 3사분위 값 사이에 전 데이터의 50%가 존재하는 구간을 사분위 범위라 한다(노형진, 2005).

<sup>4</sup> 한편 한혜승, 이주경(2007)을 통해 수집된 원어민 데이터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인 여성 2명과 캐나다인 여성 1명, 남성 2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7년 9월에 수집되었으며 이들은 한국의 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 체류기간은 1년 미만에서 3년 사이이다.

<sup>5</sup> 억양음운론의 견지에서 구액센트만 구현되면 중간구(intermediate phrase)가 형성된 것이며, 구액센트와 가장자리 성조가 함께 구현되면 억양구(intonational phrase)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한다. 자세한 설명은 참고문헌을 참조(Beckman & Pierrehumbert, 1986; Ladd, 1996).

적용하여 중간구와 억양구를 구분하였다. 또 본 논문에서는 발화속도나 어투에 관해 별다른 통제를 가하지 않았으므로 억양구와 더불어 중간구도 구설정 단위로 포함시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sup>6</sup>

## 2. 실험결과

본 실험의 결과는 *that* 전, 후에 나타나는 중간구나 억양구에 관한 국부적 경계양상에 관한 것과 *that* 전, 후의 위치를 포함하여 문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총체적 경계양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원어민의 결과와 비교하여 수준별로 구분되는 영어구사능력을 가진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계패턴이 원어민과 어떻게 다른지 조사한다.<sup>7</sup>

### 1) 국부적 경계설정

본 절에서는 *that* 전이나 후 위치에 나타난 국부적 구경계의 결과를 ‘*that* 유지문’, ‘*that* 삭제문’, ‘부가어 삽입문’이라는 문장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문형별로 한국어 상, 하위 두 집단의 자료를 원어민의 자료(한혜승, 이주경, 2007)와 비교하여 제시한다. 먼저 ‘*that* 유지문’을 살펴보면, 그림 1의 보문절의 경우는 *that* 앞 위치에 나타난 구경계의 비율이 원어민, 한국어 상위, 한국어 하위화자가 18-20%로 대략 비슷하다. 그러나 *that* 뒤의 위치에서는 원어민과 한국어 하위화자의 구경계 설정비율이 각각 58%와 64.4%로 크게 상승하는데 비하여 한국어 상위화자의 경우는 2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어 상위화자가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 무경계의 비율(62%)이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는 점에 기인한다.

한편 한국어 하위화자의 경우, *that* 앞과 뒤에 모두 구경계를 설정하는 비율이 소수 나타났다. 결국 ‘*that* 유지문’ 보문절의 경우는 원어민과 한국어 하위화자 모두 *that* 앞 보다 뒤에 경계를 설정하는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유사한데 비하여(원어민의 경우  $\chi^2=9.53$ ,  $p<.01$ , 한국어 하위화자의 경우,  $\chi^2=10.53$ ,  $p=.001$ ), 한국어 상위화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앞과 뒤에 경계를 설정하는 비율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chi^2=.059$ ,  $p>.05$ ).

<sup>6</sup> Roca와 Johnson(1999)의 언어사용에 기초한 억양구 설정기준(performance-based criteria)에 따르면 발화가 느려지고 어투가 공식화 될수록 더욱 많은 억양구가 생긴다고 한다. Monaghan(2002)의 실험연구에서도 영어를 비롯한 독일어와 네덜란드어에서 발화의 속도가 느려지면 일정한 문장에 나타나는 경계의 수가 늘어나며 발화가 빨라지면 경계에 나타나는 휴지의 길이가 줄어드는 것을 밝혔다.

<sup>7</sup> *that* 전/후 위치의 경계에 관한 원어민 자료는 한혜승, 이주경(2007)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며 문장단위의 경계를 살펴 본 원어민 자료는 한혜승, 이주경(2007)에서 사용한 음성파일을 본 연구를 위해 재분석하여 얻은 자료이다.

그림 2의 ‘that 유지문’ 관계대명사절의 경우를 보면, 구경계를 설정한 위치가 대부분 that 뒤의 위치보다는 that 앞의 위치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원어민과 한국인 상위화자가 유사하다. 원어민의 경우 73%가 관계대명사 that 앞에 구경계를 설정하여 that 뒤의 위치에 설정한 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 $\chi^2 = 35.73$ ,  $p < .001$ ).

관계대명사절을 발화한 한국인 상위화자의 경우 역시 52.2%로 관계대명사 앞의 위치에 구경계를 설정하여 8.9%의 that 뒤의 위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18.00$ ,  $p < .001$ ). 이에 비하여 한국인 하위화자의 경우 that 앞 위치의 비율은 51%로 조금 낮고, that 뒤 위치의 비율은 25%로 조금 상승하여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that 뒤보다 앞에 구경계를 설정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은 원어민이나 한국인 상위화자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chi^2 = 4.24$ ,  $p < .05$ ). 그 외에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 비율은 세 집단에서 18-29%로 나타났으며 that 앞, 뒤에 모두 경계를 설정하는 비율은 한국인 하위화자에게서 소수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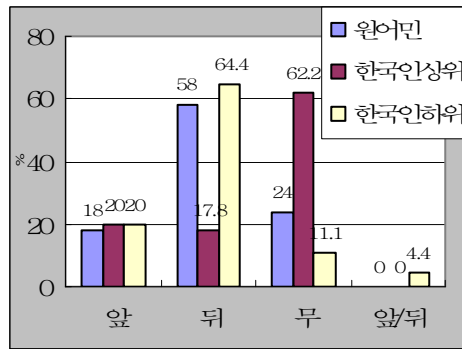


그림 1. that 유지문 보문절의 경계 위치별 경계출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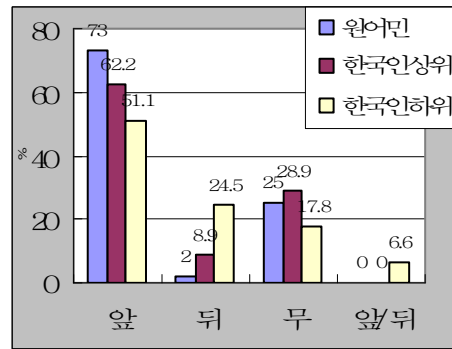


그림 2. that 유지문 관계대명사의 경계 위치별 경계출현 비율.

그림 3과 그림 4에서는 ‘that 삭제문’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hat 삭제문’의 경우는 that 앞과 뒤의 위치를 구분 할 수 없으므로 경계가 있는 경우와 경계가 없는 경우를 나누어 보문절과 관계대명사절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3에 나타난 ‘that 삭제문’ 보문절의 경우에 원어민은 무경계 비율 33%에 비해 경계의 비율이 67%로 높게 나타났지만( $\chi^2 = 5.00$ ,  $p < .05$ ), 한국인 상위화자는 무경계의 비율(73.3%)이 높기 때문에 경계의 비율이 26.7%로 낮아졌다( $\chi^2 = 9.80$ ,  $p < .01$ ). 원어민과 한국인 상위화자의 경우 모두 무경계와 경계 비율에 대한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하지만, 원어민의 경우는 유경계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으며, 한국인 상위화자는 무경계

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이에 비해 한국어 하위화자는 경계의 비율(51.1%)이 무경계의 비율(48.9%)과 거의 같은 정도로 나타났다( $\chi^2 = 0.02, p > .05$ ).

‘that 삭제문’ 관계대명사절의 경우는 그림 4에서 원어민들이 60%대 40%로 경계설정비율이 무경계의 비율보다 20%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고( $\chi^2 = 1.80, p > .05$ ), 한국어 상위화자들의 경우는 약 38%대 62%로 무경계의 비율이 경계의 비율보다 24%나 높게 나타났지만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2.69, p > .05$ ). 한편 한국어 하위화자들은 69%대 31%로 경계설정 비율이 무경계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chi^2 = 6.42, p < .05$ ). 그에 따라 ‘that 삭제문’ 관계대명사절의 경우 원어민과 한국어 상위집단은 경계설정의 유무에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동질적이거나 한국어 하위집단은 경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서 상이한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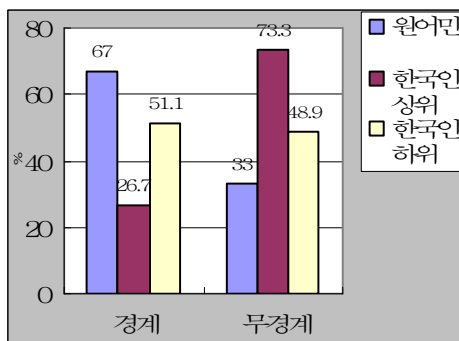


그림 3. ‘that 삭제문’ 보문절의 경계위 치별 경계출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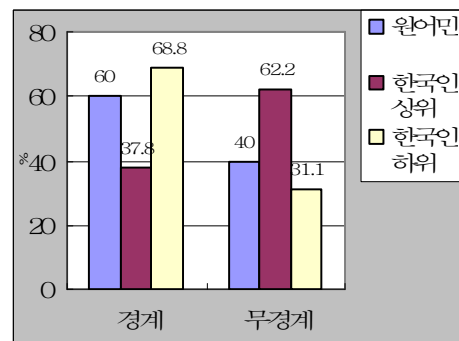


그림 4. ‘that 삭제문’ 관계대명사절의 경계위치별 경계출현 비율.

다음으로 ‘부사어 삽입문’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어민들의 부사어 삽입문에서 보문절의 경우, that 앞 위치의 경계설정 비율(56%)이 that 뒤 위치의 경계설정 비율(44%)을 약간 앞서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chi^2 = .56, p > .05$ ). 이와 같은 양상은 한국어 상위화자의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앞: 42%, 뒤: 29%,  $\chi^2 = 1.13, p > .05$ ). 한국어 하위화자들은 that 뒤 위치의 경계설정 비율이 that 앞 위치의 비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경우도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chi^2 = 1.00, p > .05$ ). 따라서 ‘부사어 삽입문’ 보문절의 경우 원어민, 한국어 상위화자, 한국어 하위화자의 세 집단 모두에서 that 앞, 뒤 위치의 경계설정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어 상위화자의 경우에만 무경계의 비율이 약 24% 나타

나고, 한국인 하위화자들은 *that* 앞, 뒤 모두에 약 20%의 경계설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 원어민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의 관계대명사절의 경우에 원어민들은 *that* 뒤의 위치(9%)에 비해 높은 비율로 *that* 앞 위치(87%)에 경계설정을 하고 있다( $\chi^2 = 57.73, p < .001$ ). 이와 유사하게 한국인 상위화자들은 *that* 앞에 76%, *that* 뒤에 2%의 경계 비율의 차이를 보이며( $\chi^2 = 31.11, p < .001$ ), 한국인 하위화자들도 *that* 앞에 53%, *that* 뒤에 24%로 *that* 앞의 위치에 비교적 높은 경계설정 비율이 나타났다( $\chi^2 = 4.83, p < .05$ ). 즉, ‘부사어 삽입문’ 관계대명사절의 경우도 원어민, 한국인 상위, 한국인 하위화자의 경우에 모두 *that* 뒤보다 *that* 앞에 자주 경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무경계의 비율은 한국인 상위(20%), 한국인 하위(13%), 원어민(4%)로 나타났고, *that* 앞, 뒤에 모두 경계설정을 하는 비율은 한국인 하위화자들에게서 약 9%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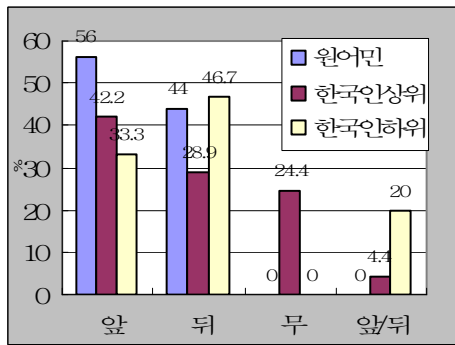


그림 5. ‘부사어 삽입문’ 보문절의 경계위치별 경계종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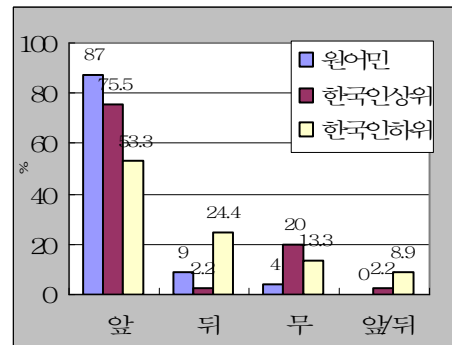


그림 6. ‘부사어 삽입문’ 관계대명사절의 경계위치별 경계종류 비율.

보문절과 관계대명사절 여섯 가지 문장유형을 통하여 나타난 원어민, 한국인 상위, 한국인 하위화자 집단의 구설정 패턴을 종합해보겠다. 원어민은 *that* 이 나타나는 보문절 문장에서 *that* 앞, 또는 뒤에 구경계가 나타났지만 관계대명사절 문장에서는 주로 *that* 앞 위치에 구경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that*이 생략된 보문절의 경우는 경계가 발생하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하여 관계대명사절의 경우는 경계가 발생하는 경우와 무경계의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원어민의 결과와 한국인 학습자들의 구설정 패턴을 비교해 보겠다. 한국인 상위화자의 경우, *that*이 있는 보문절은 *that* 앞이나 뒤에 모두 구경계가 나타났다지만 관계대명사절은 *that* 앞에만 구설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체적인 구설정의 패턴이 원어민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that* 삭제문 보문절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문장 유형에서 드러난 특징은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국어인 하위화자의 가장 큰 특징은 *that*을 포함하는 문장의 경우에 *that* 뒤의 위치에 경계가 설정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이다. 특히 관계대명사절에서 *that* 뒤에 경계가 설정하는 것은 원어민에게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사실이다.

표 1은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한 각 집단별 차이검증 결과표이다.

표 1

국부적 *that* 경계의 문장유형과 발화집단에 따른 위치별, 유무별 차이검증

문장유형	발화집단	보문절	관계대명사절
유지문	원어민	앞 < 뒤( $\chi^2 = 9.53^{**}$ )	앞 > 뒤( $\chi^2 = 35.73^{***}$ )
	한국인상위	앞 = 뒤( $\chi^2 = .06$ )	앞 > 뒤( $\chi^2 = 18.00^{***}$ )
	한국인하위	앞 < 뒤( $\chi^2 = 10.53^{**}$ )	앞 > 뒤( $\chi^2 = 4.24^*$ )
삭제문	원어민	유 > 무( $\chi^2 = 5.00^*$ )	유 = 무( $\chi^2 = 1.80$ )
	한국인상위	유 < 무( $\chi^2 = 9.80^{**}$ )	유 = 무( $\chi^2 = 2.69$ )
	한국인하위	유 = 무( $\chi^2 = .02$ )	유 > 무( $\chi^2 = 6.42^*$ )
부사어삽입문	원어민	앞 = 뒤( $\chi^2 = .56$ )	앞 > 뒤( $\chi^2 = 57.73^{***}$ )
	한국인상위	앞 = 뒤( $\chi^2 = 1.13$ )	앞 > 뒤( $\chi^2 = 31.11^{***}$ )
	한국인하위	앞 = 뒤( $\chi^2 = 1.00$ )	앞 > 뒤( $\chi^2 = 4.83^*$ )

\* $p < .05$ , \*\* $p < .01$ , \*\*\* $p < .001$

2) 총체적 경계설정

원어민 *that* 구문의 구경계가 문장전반에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상, 하 수준별 한국어 화자의 발화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that* 앞이나 뒤에 나타나는 경계의 유무와 *that* 전 또는 후 이외의 위치에 나타나는 경계의 유무를 구분하여 경계의 사례를 ‘유유’, ‘무유’, ‘유무’, ‘무무’의 네 가지 경우로 나누었다.

그림 7은 원어민, 한국인 상위, 한국인 하위집단 별로 나타난 네 가지의 경계사례를 누적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that* 전 또는 후와 그 이외의 위치에 모두 경계를 설정하는 ‘유유’의 경우에 원어민과 한국인 상위집단의 비율이 각각 24.4%와 26.3%로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비해( $\chi^2 = .18, p > .05$ ), 한국인 하위집단의 경우는 42.6%로 높게 나타나 원어민( $\chi^2 = 10.41, p < .001$ )이나 한국인 상위화자( $\chi^2 = 13.27, p < .001$ )와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원어민에게 가장 높게 나타난 경계의 사례는 문장 내 *that* 관련위치에만 경계를 설정하는 ‘유무’로서 그 비율이 54.4%로 과반수를 상회하는데 비해 한

국인 상위와 하위집단은 각각 28.5%와 36.7%로 떨어진다. 즉 ‘유무’의 경우에 한국인 상, 하위화자 간에는 차이가 없는데 비하여( $\chi^2=2.75$ ,  $p>.05$ ), 원어민과 한국인 상위화자( $\chi^2=21.88$ ,  $p<.001$ ), 원어민과 한국인 하위화자( $\chi^2=9.37$ ,  $p<.05$ )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상위집단이 문장 전체적으로 어떤 경계도 형성하지 않는 ‘무무’의 경우가 가장 높게(37.4%) 나타났고, 이는 원어민(15.9%)과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는 점이며( $\chi^2=23.36$ ,  $p<.001$ ), 원어민은 한국인 하위집단(8.5%)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6.06$ ,  $p<.05$ ). that 앞이나 뒤의 위치에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이외의 위치에만 경계를 설정하는 ‘무유’의 경우는 원어민(5.2%), 한국인 상위(7.8%), 한국인 하위집단(12.2%)의 순서로 나타났지만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hat 앞이나 뒤 위치에 구경계를 설정하는 ‘유유’와 ‘유무’의 경우를 합하여 보면 한국인 하위집단이 79.3%로 가장 높고, 원어민의 경우가 이와 매우 유사하게 78.8%으로 나타났다. 즉, 이 두 집단에서 문장 내에서 that과 관련하여 경계를 설정하는 비율은 대략 80%라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원어민의 경우는 유일하게 that에만 경계를 설정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데 비해 한국인 하위화자는 that 구문을 포함하여 that 이외의 위치에도 경계를 설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42.6%) 나타났고 that 구문에만 경계를 설정하는 비율은 그 뒤를 이어 36.7%이다. 즉 한국인 하위집단 화자들은 원어민에 비해 that 전이나 후 위치 뿐 만 아니라 그 이외의 위치에도 갖은 경계를 설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인 상위집단은 원어민에 비해 ‘무무’의 비율이 두 배가량 높고 ‘유무’의 비율은 반 정도로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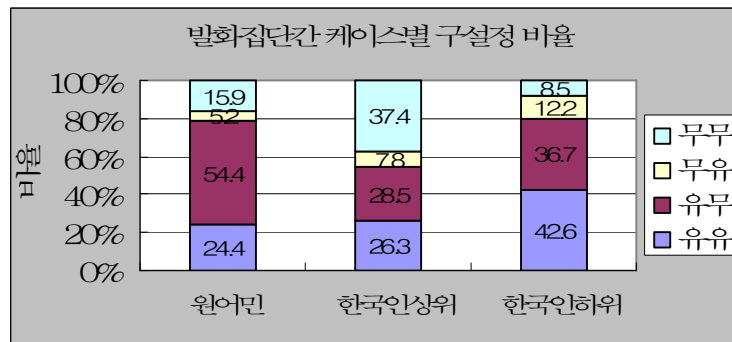


그림 7. 발화집단간 경계유형별 구설정 누적비율.

문장 전체에 나타난 구경계에 관한 지금까지의 통계결과 수치는 표 2에서와 같다.

표 2  
총체적 *that* 경계의 실현유형별 집단간 차이검증

경계유형	발화집단
유유	원어민 = 한국인상위( $\chi^2 = .18$ )
	원어민 < 한국인하위( $\chi^2 = 10.41^{**}$ )
	한국인상위 < 한국인하위( $\chi^2 = 13.27^{***}$ )
유무	한국인상위 = 한국인하위( $\chi^2 = 2.75$ )
	원어민 > 한국인상위( $\chi^2 = 21.88^{***}$ )
	원어민 > 한국인하위( $\chi^2 = 9.37^*$ )
무무	한국인상위 > 원어민( $\chi^2 = 23.36^{***}$ )
	원어민 > 한국인하위( $\chi^2 = 6.06^*$ )
무유	원어민 = 한국인상위( $\chi^2 = 1.40$ )
	한국인상위 = 한국인하위( $\chi^2 = 2.67$ )

\* $p < .05$ , \*\* $p < .01$ , \*\*\* $p < .001$

지금까지 *that* 이외의 위치에 나타나는 경계에 관해 경계의 횟수와 관계없이 유, 무로만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중 *that* 이외의 위치의 구설정이 나타나는 ‘유유’와 ‘무유’의 경우만을 추출하여 구경계의 개수를 산출한 결과가 그림 8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전체 문장에 걸쳐 나타나는 구경계의 횟수를 알 수 있으며, 원어민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능숙도(proficiency)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 8의 내용에 따르면, *that* 전/후 위치를 제외하고, 이외의 위치에 구경계를 설정한 경우가 한국인 하위화자가 가장 많고(101개 문장), 한국인 상위 화자와 원어민은 각각 73개와 69개의 문장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막대그룹을 보면, *that* 이외의 위치에서 2번의 경계설정을 한 경우가 원어민은 총 10개의 문장이고 한국인 상위집단은 18개의 문장이며 한국인 하위집단은 32개의 문장이다. 모든 집단이 경계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사례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각각의 경계개수에 따른 집단들을 사례수를 비교하면 원어민, 한국인 상위집단, 한국인 하위집단의 순서로 사례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어민은 경계개수가 3개인 경우가 단 한 문장에서 나타났으며 이 경우를 제외하면 *that* 이외의 위치에 경계를 설정하면 대체로 하나의 경계를 설정하거나 간혹 2개의 경계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하여 한국인 하위화자는 *that* 이외의 경계를 설정하는 비율도 타집단에 비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설정할 때 *that* 전이나 후 이외에도 세 개나 네 개까지 경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모두 15개의 문장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hat* 관련위치를 포함하여 문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구경

계의 횡수가 한국인 하위학습자가 가장 많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비유창성(disfluency)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다음의 3. 논의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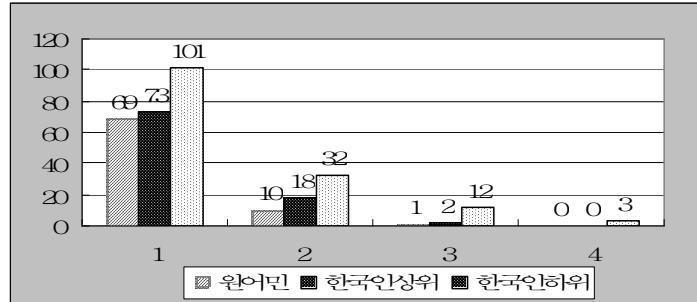


그림 8. that 이외 위치의 경계개수별 집단간 사례수.

### 3. 논의

본 연구의 실험에서 제시한 원어민의 발화분석 결과는 통사구조가 항상 운율구조와 일치하지는 않음을 보여주었다. 즉, 그림 1이나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that 보문절의 경우에는 that 앞이나 뒤에 모두 구경계가 나타났지만, 그림 2와 그림 6에서와 같이 관계대명사절의 경우는 that 앞 위치에 구경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즉, 관계대명사절은 보문절(complement clause)을 이끄는 보문사 앞에 구설정이 나타나 운율구 경계가 통사적 구조와 부합하는 위치에 생성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보문절의 경우는 보문소 앞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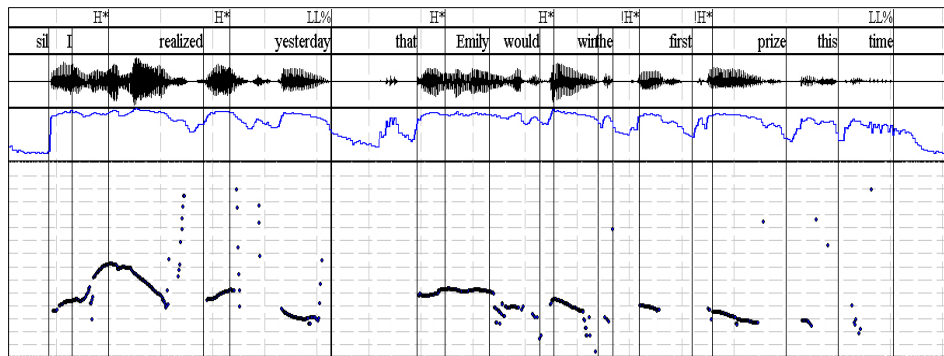


그림 9. 원어민 화자의 보문절을 포함한 문장발화에서 that 앞에 구경계가 나타난 경우의 예; (I realized yesterday) (that Emily would win the first prize this time).

뒤의 위치에 모두 운율구 경계가 발생하여, 운율구조가 통사적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의 그림 9는 *that* 보문절 문장에 대한 원어민의 발화로서, 주절의 문장부사 “*yesterday*”의 억양곡선 끝 부분에 명백한 경계성조(“LL%”)가 나타나며, 후행하는 보문소 *that*과의 사이에는 휴지공간이 나타나 *that* 앞에 구설정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원어민 발화에서 보문절 *that* 뒤에 구설정이 나타난 경우의 예는 그림 10에서 볼 수 있다. 보문소 *that*은 주절의 마지막 단어인 *that* 뒤에 경계없이 연달아 나타나고 *that*이 끝나는 지점에 구액센트가 나타나 중간구 경계(H-)가 설정되었다. 이어지는 보문절 주어 *Mary*의 지점에서는 급격히 피치곡선이 상승하여 새로운 중간구에서 피치범위가 재설정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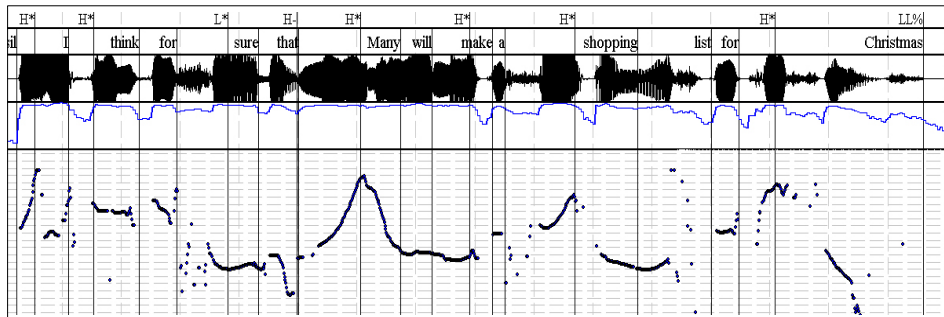


그림 10. 원어민 화자의 보문절을 포함한 문장발화에서 *that* 뒤에 구경계가 나타난 경우의 예; (I think for sure that) (Many will make a shopping list for Christmas)

이와 같은 원어민 보문절 발화의 분석결과는 Yongsoon Kang과 In-Moon Kim(2005)의 결과와 상이한 패턴을 보인다. Yongsoon Kang과 In-Moon Kim(2005)에서는 원어민의 *that* 보문절 발화에서 일관되게 보문소 앞의 위치에 구경계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향음성학적 단서를 통한 간접적인 구경계 분석과 측정방법의 기술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국부적으로 볼 때 원어민은 그림 9, 그림 10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that* 전, 후의 위치에 모두 구경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문장 전체적으로 보면 *that* 전, 후 위치에만 경계를 구성하는 비율이 *that* 전, 후와 그 이외의 위치에 복수의 경계를 설정하는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에 비해 한국어인 상위화자와 하위화자의 경우는 *that* 전, 후의 위치에만 경계를 구성하는 비율과 *that*과 그 이외의 위치에 모두 경계를 구성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보문절과 달리 원어민 발화의 관계대명사절의 경우는 구경계가 대부분의 경우에 *that* 앞 위치로 한정된다. 그림 11을 보면, 상위절의 마지막 단어

bananas의 저성조 피치액센트가 상승된 구액센트로 구경계를 맺고 있고 that은 관계대명사절 내의 다른 요소들과 함께 구설정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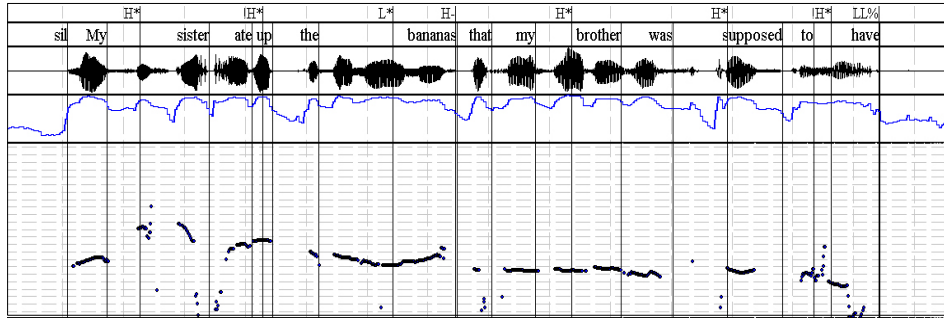


그림 11. 원어민 화자의 관계대명사절을 포함한 문장발화에서 that 앞에 구경계가 나타난 경우의 예; (My sister ate up the bananas) (that my brother was supposed to have).

지금까지 원어민에 관한 연구는 that 보문절의 경우 관계대명사절과 달리 that 보문소 앞이나 또는 뒤의 위치에 구설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문장 전체에서 that 전/후 위치에 구설정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패턴임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억양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at 보문절이나 관계대명사절에 대한 발화교육에 있어, 여타의 위치보다는 that 전, 후 위치에 우선적으로 구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문절은 that 앞이나 뒤에 어디에도 구경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교육하여야 한다. 반면, 관계대명사절의 경우는 관계대명사 that 앞의 위치에만 구설정이 가능하며 이 위치에 휴지나 적절한 경계성조를 구사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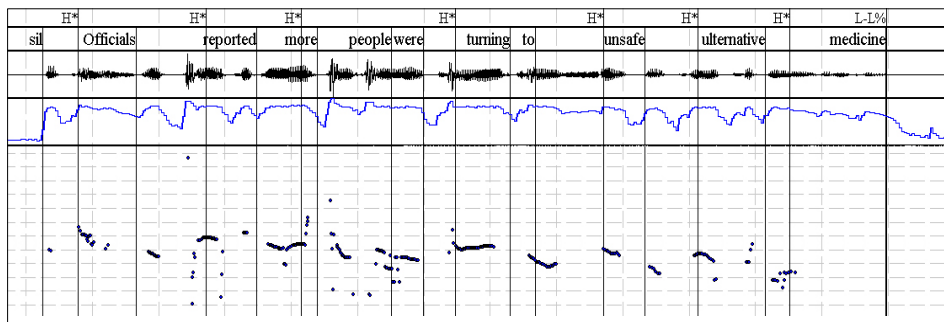


그림 12. 한국인 상위화자의 보문절을 포함한 문장발화에서 구경계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의 예; (Officials reported more people were turning to unsafe alternative medicine).

한국인 학습자의 집단별 특징으로, 먼저 상위집단 화자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난 양상은 무경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인 상위집단이 원어민의 무경계 비율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인 경우는 보문절의 세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보문절 유지문의 경우,  $\chi^2=7.41$ ,  $p<.01$ , 보문절 삭제문의 경우,  $\chi^2=6.75$ ,  $p<.01$ , 보문절 부사어삽입문의 경우 한국인 상위집단만 20%로 나타나 통계처리 불가). 그러므로 원어민에 비해 한국인 상위화자는 특히 보문절에서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2는 한국인 상위화자가 보문절을 포함한 문장을 발화한 경우이다. *that*이 생략된 이 경우에 피치액센트가 7개나 되는 긴 문장에서 단 한번도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문장을 발화하고 있다.

한국인 상위집단화자는 원어민과 마찬가지로 보문절과 관계대명사절을 구분하여 관계대명사절 *that* 뒤의 위치에 구설정을 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무경계의 비율이 높다. Ferreira(1988)는 구설정과 같은 운율작용이 화자의 입장에서 같은 구에 속한 구성요소들을 의미적으로 응집시키는 작용을 하며 그 결과 청자의 입장에서 기억유지와 의미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인 상위집단이 원어민에 비해 구설정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청자의 의미인지에 방해를 주거나, 한국인 화자가 영어 문장의 의미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발화한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영어 억양교육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경계성조를 무시하고 빠른 발화속도에 집중하는 상위집단 학습자의 경우, 청자에게 화자의 의미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사소통 측면을 고려하여 내포절의 종류에 따라 *that* 앞이나 뒤의 위치에 경계설정을 집중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구문을 바탕으로 적절한 위치에 경계를 설정하는 훈련이 제공된다면 리듬과 음보를 기본으로 한 영어발화의 자연성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인 하위집단 화자의 특징은 *that* 뒤의 위치에 구경계를 설정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일관되게 높다는 점이다. 특히 원어민과 비교하여 한국인 하위화자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경우는 관계대명사절 *that* 유지문( $\chi^2=8.33$ ,  $p<.01$ )과 관계대명사절 부사어삽입문( $\chi^2=4.83$ ,  $p<.05$ )이다. 관계대명사절의 *that* 뒤의 위치에 경계성조 또는 휴지를 생성하는 경우가 원어민의 발화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 하위집단은 관계대명사절의 구경계를 올바르게 발화하지 않으며 상이한 *that*절의 구조를 운율정보로 반영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 13은 한국인 하위화자가 관계대명사절을 포함한 문장을 발화한 예이다. 이 발화에서 관계대명사 *that*을 위시하여 그 앞과 뒤에 모두 구액센트와 경계성조가 결합된 억양구 설정을 하고 있다. 상위절의 마지막 단어 *there*의 억양곡선에서 구액센트와 경계성조가 나타나고(H-L%), *that*과 하위절의 주어

사이에도 긴 휴지 구간을 넣어 억양구 경계를(H-L%) 발생시켰다. 기능어 *that* 에 피치액센트가 구현되어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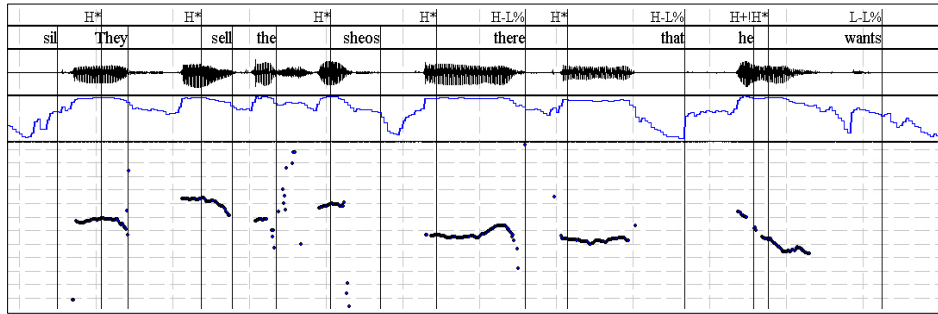


그림 13. 한국인 하위화자의 관계대명사절을 포함한 문장발화에서 구경계가 *that* 앞, 뒤에 모두 나타난 경우의 예; (They sell the shoes there) (that) (he wants).

한국인 상위집단의 경계설정 비율이 낮다는 문제는 국부적으로나 총체적으로 일관되게 발견되는 문제인데 비하여, 하위집단이 문장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빈번하게 경계설정을 하는 문제는 관계대명사절 *that* 뒤의 위치에 경계를 설정하는 국부적인 경계설정 패턴과 겹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부사어 삽입문 보문절의 발화에서는 그림 13에서와 같이 보문소 *that* 의 앞, 뒤에 모두 경계설정을 하는 경우가 20%나 나타났다. 영어 원어민 어린이들의 발화를 연구한 Nittrouer(1993)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L1이나 L2의 경우 모두 언어발달이 미숙한 단계에서는 구설정의 능력도 미숙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하위집단 화자의 영어 구설정 패턴을 우리나라 영어 억양교육에 반영하여 문장의 의미와 구조를 고려하여 문장을 구 단위로 발화하는 법을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행하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은 상위절의 구설정을 마친 후에 덧붙여 발화하도록 연습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보문절의 경우, 동사와 후행하는 목적어가 밀접한 요소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목적어가 *that* 절로 나타날 때에는 “said that-”, “think that-”과 같이 연결되는 구문을 제시하고 이후에 경계를 설정한 후 내포절 내용을 확장해 가도록 발화연습을 시킬 수 있으며, 또한 구경계를 보문소 앞의 위치에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that* 앞에 휴지를 두고 후행하는 *that* 보문절을 하나의 말뭉치로 교육할 수도 있다.

또한 구설정에 대한 정확한 발화교육을 위하여 휴지뿐 아니라 적절한 가장자리 성조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함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즉, 아직 발화가

끝나지 않는 문장 중간에 구설정을 할 때에는 중간구 설정을 위해서는 고성조 구액센트(H-)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하며, 억양구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L-H% 또는 H-L% 가장자리 성조를 구현하는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 Ⅲ. 결론

본 논문은 한국어 수준별 학습자의 영어발화의 억양에 나타난 구설정 양상을 원어민의 발화와 비교하고 일정하게 나타나는 구설정 오류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보문절과 관계대명사절 *that* 문장에 나타난 경계설정에 관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의 영어발화를 원어민의 발화와 비교하고 원어민의 발화와 차이를 보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험결과는 한국어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이 문장 내에서 국부적으로 *that* 전, 후와 총체적으로 문장 전체에 걸쳐 나타난 구경계 설정양상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실험결과, 한국어 상위집단 화자와 하위집단 화자는 국부적으로 *that* 전, 후 위치와 문장 전반에 걸친 구경계 설정에 있어서 집단간에 상이한 패턴을 보였으며, 원어민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른 면에서 차이가 났다. 먼저 *that* 전, 또는 후 위치에 집중하여 구경계를 형성하는 원어민에 비해 한국어 상위집단 화자들은 이 위치에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현상은 보문절을 포함하는 문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상위화자들은 문장 전반에 걸쳐서도 구경계 설정 비율이 원어민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한국어 하위집단 화자들의 경우에 *that* 전, 후 위치로 한정하여 볼 때, 관계대명사절의 *that* 뒤에 경계를 설정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 점은 해당 위치에 경계를 거의 설정하지 않는 원어민과 통계적으로 구별되는 양상이었다. 문장 전반적으로는 구경계설정 비율이 높게 나타나 *that* 전, 후 위치 이외에도 구경계를 빈번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어민과 비교하여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는 한국어 상위권과 하위권 학습자들의 억양패턴은 각기 서로 다른 억양교육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수준별 학습자들에게 문장의 종류와 구조적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구설정에 대한 억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자연스럽게 원활한 의미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희산. (1989). 영어와 한국어억양 대조분석. *영어교육*, 38, 47-63.
- 구희산. (1991). 한국인의 영어 억양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 *영어교육*, 42, 89-105.
- 노형진. (2005). *SPSS 12.0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서울: 형설출판사, 119-210.
- 신동현. (1999). *영어 초점 발화에 나타난 원어민과 한국인 화자의 억양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엄혜영, 이혜숙, 김기호. (2001). 초점과 정보구조에 따른 한국어 화자의 영어 억양 실현 양상. *음성과학*, 8(2), 133-148.
- 오세풍, 장영수, 이용재. (2001). 영어의 문장부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억양특성 분석. *음성과학*, 8(2), 119-132.
- 이명숙. (2004). *영어 의문문을 이용한 영어 억양지도*.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 이주경. (2005a).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저성조 피치액센트 발화의 문제점. *음성, 음운, 형태론 연구*, 11(2), 353-366.
- 이주경. (2005b).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접속사 발화에 나타난 가장자리성조 패턴. *음성과학*, 12(4), 141-152.
- 이혜숙. (2002). *초점과 정보 구조에 따른 영어 억양 실현 양상*.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한혜승, 이주경. (2007). 영어 that 전/후의 구설정 패턴: 보문절과 관계대명사절을 중심으로. *음성과학*, 14(4), 53-64.
- Beckman, M. E., & Pierrehumbert, J. B. (1986). Intonational structure in Japanese and English. *Phonology Yearbook* 3, 255-309.
- Bošković, Z., & Lasnik, H. (2003). On the distribution of null complementizers. *Linguistic Inquiry* 34, 527-546.
- Ferreira, F. (1988). *Planning and timing in sentence production: The syntax-to-phonology conver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MA.
- Herwijnen, O., Terken, J., Bosch, A. D., & Marsi, E. (2003). Learning PP attachment for filtering prosodic phrasing. In *Proceedings of the EACL 11th Conference of the Europe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139-146.
- Kang, Yongsoon, & Kim, In-Moon. (2005). Prosodic phrasing of Korean speakers' English production. *Korean Journal of English and English Linguistics*, 5(3), 383-402.

- Kim, Young-Sun. (1999). English cliticization and intonational phrases.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9(2), 429-465.
- Kim, Young-Sun. (2004). English null complementizer as a clitic and intonational phrase boundary.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4(3), 349-373.
- Ladd, D. R. (1996). *Intonational phon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naghan, A. (2002). An auditory analysis of the prosody of fast and slow speech styles in English, Dutch and German. In E. Keller, G. Bailly, A. Monaghan, J. Terken, & M. Huckvale (Eds.), *Improvements in speech synthesis*, (pp. 204-217). New York: Wiley & Sons.
- Nittrouer, S. (1993). The emergence of mature gestural patterns is not uniform: Evidence from an acoustic study.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6, 959-972.
- Roca, I., & Johnson, W. (1999). *A course in phonology*. Oxford: Blackwell.
- Watson, D., & Gibson, E.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intonational phrasing and syntactic structure in language production.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 19(6), 713-755.

한혜승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130-743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Tel: (02) 2210-5635/ H.P.: 017-411-4508  
Email: jkyoonhan@gmail.com

이주경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130-743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Tel: (02) 2210-5635/ H.P.: 019-413-8650  
Email: jookyeong@uos.ac.kr

Received in September 30, 2008

Reviewed in October 14, 2008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10, 2008